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나를 사랑해! =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If you' 시리즈의 작가 로라 누메로프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운율. 엄마, 아빠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렸다.

(랜덤하우스 코리아·9천원)

▲호미를 먹은 쥐='언어'의 시인

안도현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불교문화. 인도의 전설과 민담 540여편 가운데 친구, 나눔, 겸손 등 3개의 화두로 나눈 10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파랑새·9천원)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8명의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한국사 강의. 인류의 탄생부터 한반도 최초의 문명과 국가를 일군 사람들의 역사

=어린이들에게 위안과 응기를 주는 옛날이야기. 마음씨가 나쁜 새엄마의 계략에 의해 오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막내 여동생이 지혜를 발휘해 오빠들을 찾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8·9·10월)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어린이들에게 위안과 응기를 주는 옛날이야기. 마음씨가 나쁜 새엄마의 계략에 의해 오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막내 여동생이 지혜를 발휘해 오빠들을 찾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파랑새·8천원)

6인이 들려주는 '배신 공화국'

21세기를 사는 지혜 - 배신 김용철 외 6인



우리가 흔히 쓰는 '염장 지른다'는 말의 어원은 '배신'에서 시작됐다. 신라 후기의 무장 암장(閻長)이 거짓 항복을 한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장보고를 살해한 것에 빗대어 나온 말이다.

첫 사랑의 아련한 약속을 저버린 연인,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밀을 밭설해 버린 직장 동료 등을 두고 우리는 '배신자'라는 이름표를 달아 증오하기도 한다. 배신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며 때문에 더욱 참혹한 슬픔을 안겨주곤 한다.

한겨레출판이 삼성 특검의 밭설이 됐던 김용철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6명이 들려주는 배신에 대한 생각을 '21세기를 사는 지혜-배신' 편에 담았다.

이 책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주최한 릴레이 인터뷰 특강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출간됐던 '자존심' '거짓말' '상상력' '교양'에 이은 다섯 번째 '21세기를 사는 지혜' 시리즈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배신, 나의 배신'이라 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

더드를 가지고 회사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일할 것이다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비서실 구조조정 본부는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이 국민과 직원들에 배신했다는 것이다.

또 김 변호사는 "조직의 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히려 배신했다고 하더라"며 "법대로 가지 않는 게 배신이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는 "우리 사회에는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배신을 한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남용되고 있으며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배신의 대부분은 무너난 배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내 행동은 동기부터 이해를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결과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으로도 불리는 진중

권 교수는 '집단의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문화는 특정 사안에 집중할 때 일인칭(자신의 판단)이 아닌 삼인칭(다수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신의 반대 개념인 '신뢰'의 중심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대중들은 "저 사람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뢰를 품게 된다는 것이다. 진 씨는 "이 같은 집단의 배신이 사회의 유통을 걸친 기능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과학과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신으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꼽았다.

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 배신'을,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학생을 버려두고 정치로 뛰어든 '풀리페서' (Polifessor)의 배신을 각각 꼬집었다.

강사, 사회자, 청중 등의 문답 과정을 그대로 책에 실어 현장감과 책 읽는 데 속도감을 더해줬지만, 특강 내용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 논의의 전개가 일관되지 않고 흐름이 자주 끊기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법정 '무소유'

연극 '의자는 잘못 없다'라는 공연을 끝내고 관객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

극의 내용은 한 남자가 의자를 갖고 싶어 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상속의 혜프닝인데 결국 주인공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주인공은 실업자다. 의자를 사면 가계부담이 커 마누라가 반대한다. 공짜로 받기엔 양심에 거리끼고 심지어는 의자 때문에 이혼, 죽음까지 확대 해석된다. 결국 주인공은 의자를 포기하고 평온을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객이 질문을 했다. "왜 갖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요?" "주인공이 의자를 차지하고 행복한 결말을 내리면 않되나요?"

순간 "아 그렇게 생각하는 관객도 있었다" 싶었다. 극의 구성이 여러 상황을 제시하니까 얼마든지 결말을 다르게 낼 수 있겠구나, 그건 어디까지 관객의 뜻이니까.

하지만 왠지 쓸쓸함과 함께 한권의 책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떠올랐다. 어릴 적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읽은 후, 군대 맡은 내

삶의 기쁨이란?

무반에서 표지가 해지도록 성경처럼 읽고 하였다. 연극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책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난 두 분을 선물받은 스님은 운동 조절을 위해 때마다 자리를 옮겨주고, 귀한 비료도 구하고, 관련 서적을 구해 연구하는 등 부모님께 하면 효자소리를 들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들인다.

잠마가 간 어느날 스님은 날을 풀에 내 놓으 채 봉선사로 출타를 하게된다. 아차 싶어 얼른 돌아와 보니 대체하나 난이 시들해 있더라는 것이다. 이런 게 집착하고 집념이고 고로움이구나. 없었을 때는 무념이었던 게 있음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걸 깨닫는 스님은 친구에게 난을 줘버린다. 간디가 말했다는 "소유가 범죄다"라는 걸 되뇌이며 결국 절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의자는 잘못 없다'의 주인공 강명규도 범립으로써 얻는 게 아니었을까? 의자를 포기 함으로 가정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얻게된 것이다.

책의 중간 중간에 요즘은 인간마저 소유하려 한다는 대목도 있다. 국가를 소유 하려 한다는 부분도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역행하는 사상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리면 얻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곱씹어본다.

우리들은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때로는 그것들이 정말 필요 한 건지, 때로는 그걸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고 속박당하고 고통을 받지는 않는지,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있어서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삶이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한 번은 휴대폰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후배가 어이 없어 하는 표정을 보았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쳐지면 낙오되기에 따라가기 바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 앞에서 킁킁인 내가 몸부림 치고 있으니 말이다.

공연 후 질문했던 관객에게 조심스레 '무소유'란 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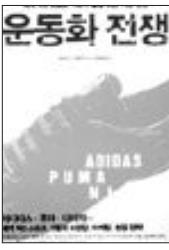
이행원(연출가·씨디아트홀 관장)



사진 왼쪽부터 김용철 변호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조국 서울대 교수, 진중권 문화평론가.

세계 빅3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

운동화 전쟁 바바라 스미트 지음



아디다스, 푸마, 나이키.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을 담은 '운동화 전쟁'이 출간됐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프랑스의 바바라 스미트가 쓴 '운동화 전쟁'은 세 기업의 창업 과정과 성장, 침체와 몰락, 재기의 성공 신화를 담은 책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전략, 기업 인수전 등 숨막히는 대결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아디다스 창업자 아디 디슬러와 푸마 창업자 루디 디슬러 형제의 전기이다. 두 회사의 기업 역사다.

또 아내나, 나이키 에어, 러그볼 등 유명 상품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나이키 코마네치·데이비드 베컴,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쟁쟁한 스포츠 스타와 거물들이 이들 '빅 3'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를 통해 본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

일본, 영상, 미국 나카이 나오기 지음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를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미국 코넬대 아시아학과 사카이 나오기 교수가 폴린 일본, 영상, 미국은 '디어헌터' 등 영화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과거'를 재편성 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밝힌 책이다.

눈에 띠는 글은 4부 '내전의 폭력과 국민주의-박하사탕을 해석한다'다. 지난 1997년 광주비엔날레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저자는 '민주주의 이념과 그 실천의 본거지'인 광주의 망월동을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광주항쟁과 현대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다룬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을 분석했다.

또 '디어헌터'는 반전영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은밀한 전도사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아의 백인인 일본인이 전전 후 어떻게 우익으로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린비·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 경매계의 자부심!

■ 위치: 법원 앞 번화가 113호 T. 062) 227-6666 011-646-2226

■ 투자 및 투자를 위한 전문가 회사
부동산 투자 및 투자를 위한 전문가 회사

■ 대중법률경매(주) = 수탁업자로 활동하는 전문가 회사

■ 대중법률경매(주) = 수탁업